

HOME > 뉴스 > 대학문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신지원 기자 shinj35@unn.net | 승인 2020.03.11 15:21 | 댓글 1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등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한국대학신문 신지원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라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뉴스
교육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이혜숙 기자 | jib@jbkns.com



승인 2020.03.11 13:49:12



[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하여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 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하여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라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일제강점기 중앙 및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3-11 13:56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자료제공=전주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하여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하여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라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OME](#)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뉴스플러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신호송 기자 | 🕒 승인 2020.03.11 15:20 | 💬 댓글 1

■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일제강점기 중앙 및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대학저널 신호송 기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화,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라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뉴스

JM영상

정치

사회

경제/IT

교육/문화

행복을 여는 사람들

사설/칼럼

오피니언

전주시 · 익산시 · 군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임실군 · 순창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부안군 · 고창군

실시간 속보

· 이상직, 민주당 '벤처 세계 4강 위원..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간사협의회서 민..

뉴스 > 문화/공연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일제강점기 중앙 및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염형섭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1일



© e-전략매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참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돼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한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이 수록됐다.

또한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 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한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열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며,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형섭 기자 / | 입력 : 2020년 03월 11일 [다른기사 보기](#)

[다른기사 보기](#)



HOME > 뉴스 > 대학 핫 뉴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하영 | 승인 2020.03.11 16:03 | 댓글 1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일제강점기 중앙 및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하여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화,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 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적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하여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라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Tag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유교단체연구 #교수신문

HOME > 전북 > 교육/학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자료총서 발간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3.11 22:54 | 댓글 0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일제강점기 중앙 및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하여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하여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HOME > 교육 > 교육종합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발간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3.11 18:29 | 댓글 1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과 '전라남도 유도 창명회'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돼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 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화,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하여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하겠다"며 "연구단의 자료 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뉴스
교육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발간

엄범희 기자 | bhaum2730@naver.com

승인 2020.03.11 13:45:51

G f N 8

-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일제강점기 중앙 및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투데이안]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총서,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돼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그동안 근현대 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엮어 이후 관련 분야 연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라며, 이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OME > 교육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연구' 등 발간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3.11 17:48 | 댓글 0



|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지방 유교단체의 기관지 수록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전라남도 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유교단체 기관지의 세부 목록이 수록되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중앙의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화,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과 지방의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을 수록했다.

두 번째 자료총서에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들 가운데 지방 단위 유교단체의 대표적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를 한 데 모았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변은진 교수는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총서 발간

전국 2020/03/11 16:37 입력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최근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과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전주대 제공) /©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근현대 유교문화에 대한 자료총서 2편을 발간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최근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과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각각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첫 번째 자료총서인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에는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중앙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이 담겨 있다.

또 지방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도 수록됐다.

두 번째 자료총서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는 일제강점기 지방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 담아냈다.

특히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전주대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수록된 이번 자료총서가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며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저작권자 © 뉴스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 지방 > 전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근현대 유교문화 연구’ 총서 발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3-11 16:37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좋아요 0개

공유하기

Tweet

인쇄

확대

축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최근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과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발간했다.(전주대 제공)©뉴스1

전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근현대 유교문화에 대한 자료총서 2편을 발간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최근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 목록’과 ‘전라남도유도창명회’를 각각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첫 번째 자료총서인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에는 경학원잡지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중앙 유교단체인 대동사문회, 유도진흥회, 조선유교회, 조선유도연합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이 담겨 있다.

또 지방 유교단체인 강원도유도천명회, 전라남도유도창명회, 충남 홍성의 유교부식회, 개성명륜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5종의 기사별 세부목록도 수록됐다.

두 번째 자료총서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는 일제강점기 지방 유교단체의 대표격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에서 발행된 기관지, ‘창명’ 1~5호의 원문을 비롯해 수록 기사의 세부목록, 각 기사들에 포함된 인명의 색인어까지 담아냈다.

특히 기사를 세부적으로 구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필자별 상세 데이터 등을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

전주대는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를 보기 쉽게 수록된 이번 자료총서가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은진 교수는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것이다”며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